

컬러매니지먼트의 모든 것, All About CMS

〈기고〉 박웅식 아그파코리아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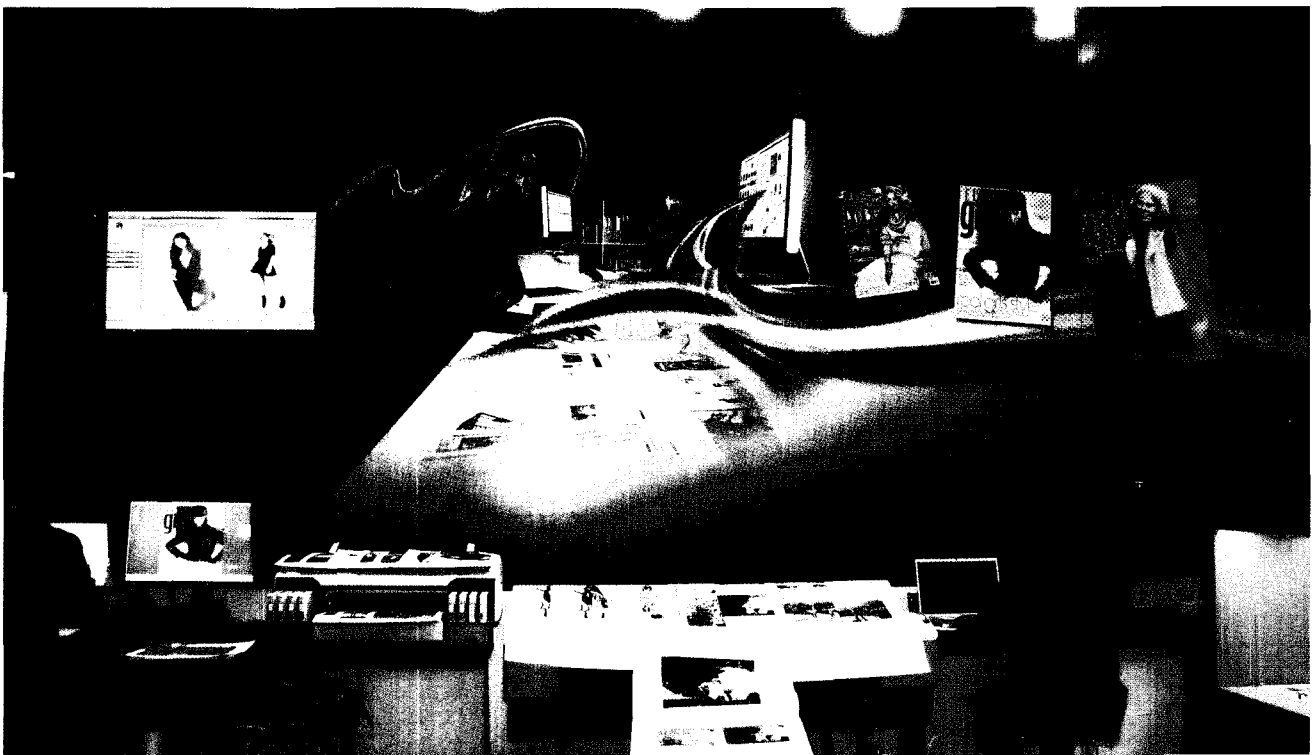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제1회 2009 서울 매거진 페어가 잡지 산업의 활성화와 잡지 저변인구의 확대를 위해 한국잡지협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주)에이치엠코리아(엘르, 엘르걸 등), 중앙 m&b, 가야미 미디어(하퍼스바자, 에스콰이어), 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집, 맘앤양팡), 서울문화사 등에서 2700여 종의 잡지들이 출품하였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잡지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인쇄 및 출판산업의 어려움을 말해주듯 이번 전시회가 최초의 매거진 페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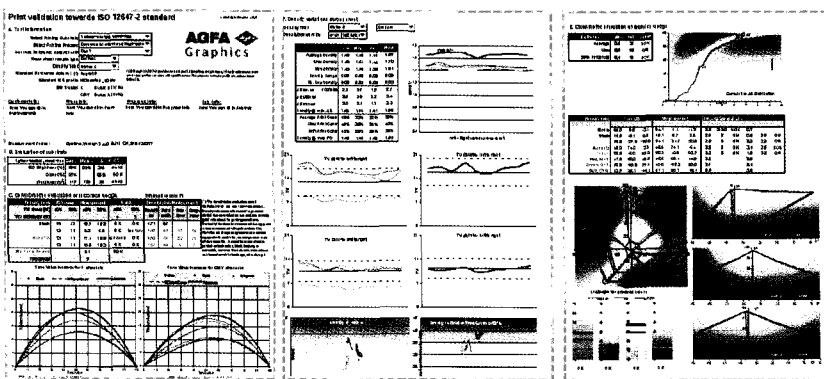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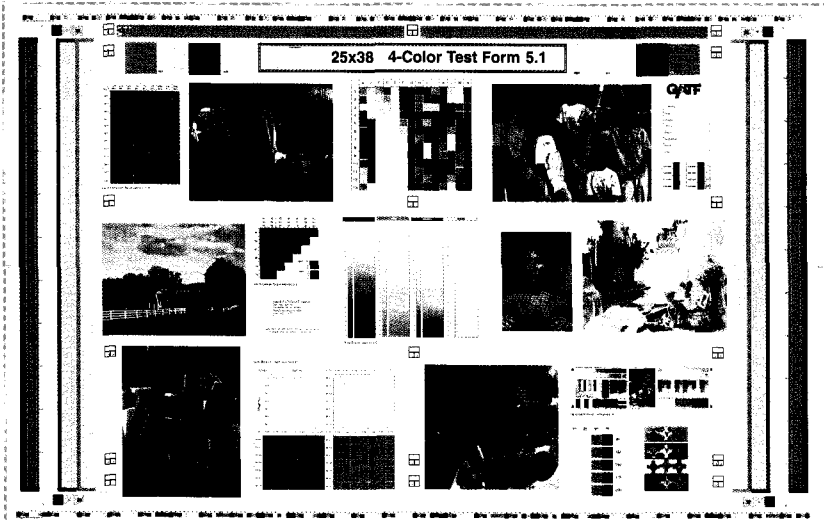
전시회가 펼쳐진 나흘 동안 많은 참관인들의 발길을 서게 만들었던 부스는 엘르, 엘르 걸 등을 발행하고 있는 에이치엠코리아의 부스였다고 생각한다. (주)에이치엠코리아는 현재, 엘르 걸(ELLE girl)의 인쇄 품질을 세계 최고 기준으로 향상시켜 파리 본사 수준에 부합되는 인쇄 품질을 재현하여 국내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고자 아그파코리아(주)로부터 CMS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초에 아그파 코리아 프리세일즈 팀은 (주)에이치엠코리아로부터 자사 매거진의 전세계 공통 에디션 분의 색상이 본사 색상과 동일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매월 인쇄품질이 일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쇄 품질이 향상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의뢰를 받고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제안한 바 있었다.

첫째, (주)에이치엠코리아의 협력 인쇄업체의 인쇄 작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둘째, 협력 업체 인쇄 표준화 작업 수행하며, 셋째, 협력 인쇄 업체에서 생성된 Profile의 출판 편집 환경을 적용하는 한편으로, 넷째, 궁극적으로 웹기반 화면 교정 솔루션을 통한 교정 승인 및 인쇄회사와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솔루션은 첫째 단계에서 (주)에이치엠코리아의 협력 인쇄업체의 판재 안정성을 제일 먼저 확인한 후, 인쇄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테스트 인쇄 시 기초적인 인쇄불량과 여러 품질 계수를 항상 같이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기기상 혹은 재료상의 여러 특징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정한 부분의 값을 ISO 12647-2를 참조하여 워크 플로우에 보정값을 적용한다. 위의 두 과정은 가장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 다음 단





ISO 12647-2를 참조한 인쇄품질의 분석

계가 인쇄색상을 대변해주는 ICC Profile을 만들기 위한 인쇄이다. ICC는 색상에 관한 언어라고 이해 하는 게 가장 쉬울 듯 하며, 다양한 측정을 바탕으로 한 패치와 이미지들로 구성된 인쇄 품을 가지고 인쇄소에서 규정하는 기준 값으로 테스트 인쇄를 진행한다. 모든 테스트 인쇄에서 추출되는 인쇄에 대한 정의 및 기록은 CMS컨설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인쇄 자료 내의 다양한 형태의 패치와 이미지들로 인쇄물의 품질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에이치엠코리아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운전기 인쇄 기준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쇄 기준을 확보, 더욱 발전된 출판업무환경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CMS 프로젝트를 통해 7월호부터 '엘르 걸'을 출간 중이며, 인쇄품질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한 (주)에이치엠코리아는 같은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타 잡지에도, 잡지의 제작공정을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CMS 컨설팅 제작과정을 실제 부스에서 재현, 전시하여 참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및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부스에서는 디자이너 단의 모니터 화면에서부터 확보 촬영 인화지, 출력소의 색상 교정 그리고 인쇄소의 디지털 교정 및 실제 인쇄물까지의 컬러를 동일하게 일치시켜 시연하였는데, 만약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아그파 아포지 포탈 웹서버가 작업 데이터를 바로 확인, 미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실, 출력소, 인쇄사 어디에서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임을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CMS는 '엘르 걸'의 사례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CMS 사례는 이처럼 우리 업계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에이치엠코리아에서는 발행되고 있는 각종 잡지들과 출판물까지도 컬러매니지먼트솔루션이 적용,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서울매거진페어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된 '엘르 걸'의 뛰어난 컬러매니지먼트의 결과는 고객사인 에이치엠코리아 측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탐구하는 자세, CMS를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쇄물을 직접 작업하는 인쇄회사의 노력과 함께 아그파코리아 프리세일즈팀의 끊임없는 지원이 조화를 이룬 결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